논어 19편 자장 21장 · 원문·풀이

子貢曰：「君子之過也，如日月之食焉。過也，人皆見之；更也，人皆仰之。」

독음 · 자공왈 군자지과야 여일월지식언 과야 인개견지 경야 인개앙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군자의 잘못은 해와 달의 식처럼 모두가 본다. 고치면 모두가 다시 우러러본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

之 갈 지 / 過 지날 과 과 / 也 어조사 야 / 如 같을 여 여

日 날 일 일 / 月 달 월 월 / 食 밥 식 식 / 焉 어찌 언 언

人 사람 인 / 皆 모두 개 개 / 見 볼 견 견 / 更 고칠 경 경

仰 우러를 앙 앙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